					II-F-1
제목	국문	한국형 질병분류체계에 의한 사망손실연수의 평가			
	영문	Estimating Years of Life Lost Based on Korean version of Disease Classification			
저 자 및 소 속	국문	조희숙, 성주헌, 최인정, 이태진, 김재용, 송윤미, 정은경, 신해림, 신영수[1 2 3 4 5 6] 강원대학교 예방의학교실,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보건사회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국립 보건원, 국립 암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1 2 3 4 5 6]			
	영문	Heu Sug Jo, Joohon Sung, In-Jung Choi, Tae-Jin Lee, Jae-Yong Kim, Yun-Mi Song, Eun-Kyung Chung, Hae Rim Shin, Youngsoo Shin *Kangwon University, Hallym University, Seongkyunkwan University,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분야	보건관리 [질병부담측정]	발표자	성주헌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1. 목적

질병분류체계는 질병부담 (Burden of Diseases, BoD)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된다. 즉, 결정된 질병분류 단위별로 역학지표가 산출되며, 장애가중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WHO 등의 BoD 연구자들은 표준적인 질병분류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BoD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질병분류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형 질병분류체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2. 방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1) 국제적인 BoD 의 비교를 위한 호환성을 유지할 것, 2) 자원배분, 보건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질병관리의 단위로서 우리나라의 질환-손상의 역학상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 3) 학술적인 관심도를 반영하여 의학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또한 의학연구를 위한 자원배분의 근거자료로서 활용가능성, 4) 국내의 기타 보건의학 자료원들인 암등록, 전염성질환 감시체계, 사망원인통계, 국민건강 영양조사 등과의 호환성 고려할 것. 국내외의 문헌고찰과 국내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3 개 대분류 (1 군:전염성 주산기 영양결핍성 질환, 2 군:만성-퇴행성 질환군, 3 군:사고 및 손상), 20 개 중분류, 116 개 소분류 및 소세분류로 구분을 하였고, 해당 분류표의 ICD-9, ICD-10 코드체계 명시는 물론, 국제 BoD 연구의 표준안 및 국내 기타자료원과의 호환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 속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오분류, 미분류의 가능성이 높은 잉여코드 (garbage code)를 선정하여, 향후 이들을 적절한 방법이 개발되는 대로 질병부담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garbage code 로는 원인미상 (ICD-10, R99, 이하 ICD-10 분류체계), 노쇠 (R54), 기타 패혈증 (A41), 비기질성 정신질환 (F29), 일차성 고혈압 (I10), 심부전 (I50), 신부전 (N17-N19) 등이 포함되었다.

3. 결과

위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일차적으로 1990 년도, 1995 년도, 1999 년도의 전국 사망손실연수를 산출하였다. 1990 년의 경우 조기사망으로 인한 총 293 만년의 손실 중, garbage code 가 34 만년을 차지하였고, 95 년의 경우는 319 만년의 손실 중 32 만년, 99 년에는 312 만년 중 32 만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체 질병 부담의 10%를

초과하고 있었다.

4. 고찰

향후, 이러한 질병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장애가중치, 상병관련 역학지표를 산출하고, 10%를 초과하는 질병부담의 분배 원칙을 결정하여 보다 정확한 질병부담의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